

쇼트트랙 김길리, 세계선수권 1500m 金

(여자부)

2분21초192 기록
생애 처음으로 획득

남자 1500m 결승선
황대현-박지원 충돌



김길리가 16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1위로 골인하며 환호하고 있다. 김길리는 2분21초19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생애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생애 첫 세계선수권대회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김길리는 16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1초19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월드컵 시리즈 종합 우승에 이어 세계선수권 정상까지 정복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재정비를 이유로 2023~2024시즌 태극마크를 잠시 내려놓은 가운데 김길리는 여자부 에이스로 우뚝 섰다.

2023~2024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1~6차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를 수확해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안방에서 열린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던 김길리는 생애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결승에서 레이스 중반 이후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던 김길리는 4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허너 데스멧(벨기에), 크리스틴 산토스 그리스월드(미국)에 밀려 3위로 처졌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에서 역전극을 선보였다. 첫 코너에서 데스멧과 산토스 그리스월드(미국)가 경합을 하는 사이 인코스로 파고들며 추월에 성공한 김길

리는 속도를 더욱 올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데스멧이 실격 처리되면서 산토스 그리스월드가 2분21초413으로 은메달을, 코린 스토다드(미국)이 2분22초244로 동메달을 따냈다.

김길리와 함께 결승에 오른 심석희(서울시청)는 2분22초509로 4위에 올랐다.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박지원(서울시청), 황대현(강원도청)이 부딪히면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레이스 중반 이후 선두를 달리던 박지원은 4바퀴를 남겨놓은 상황까지 가

장 앞에서 달렸다. 황대현은 중위권에서 추월을 노렸다.

하지만 3바퀴를 남기고 인코스 추월하던 황대현이 박지원과 부딪혔고, 박지원은 흔들리면서 뒤로 처졌다.

선두를 유지한 황대현은 1위로 레이스를 마쳤고, 결승선 통과 후 크게 포효했다. 그러나 '직선주로 끝에서 뒤늦은 추월'로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다.

황대현의 실격으로 2위로 들어온 쉰둥(중국)이 2분23초00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가져갔다. 엔스 반트하우스(네덜란드)가 2분23초260으로 2위, 브렌

던 코리(호주)가 2분23초428로 3위가 됐다.

황대현과 접촉 후 뒤로 밀렸던 박지원은 최대한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6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두 시즌 연속 월드컵 종합 우승을 차지한 박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선수권 1500m 금메달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023~2024시즌 월드컵 1차 대회 10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도 황대현은 박지원을 뒤에서 밀치는 반칙을 범해 엘로카드(YC)를 부여받기도 했다. /뉴시스

한국 펜싱 발전 공로 인정

정현을 익산시장, 펜싱협회 공로패 수상
국가대표 선발전·상비군 전지훈련 등 유공

정현을 익산시장이 대한펜싱협회로부터 펜싱 발전 공로패를 수상했다.

지난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시장은 펜싱 아카데미 건립과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상비군 전지훈련 등 펜싱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정현을 시장은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명품 스포츠포지 익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특히 펜싱 분야에서는 펜싱 아카데미를 건립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등 펜싱 메카 도약을 위해 각고의 공을 들였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중·고등학교 펜싱 대회, 상비군 전지훈련 등을 익산시에 유치하며 펜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 1월에는 '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및 전국 남녀종목별 오픈펜싱선수권 대회'를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오는 7월과 11월에는 각각 1,5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중고펜싱 선수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의 펜싱 인프라와 다수의 대회 개최 경험을 활용해 펜싱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적극적인 대회 유치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선수단과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대규모 스포츠 대회 순창서

순창군, 화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24일까지 개최

스포츠산업도시 순창군이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전국 단위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순창군은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공설운동장과 제일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장에서 '제45회 화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선)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후원하는 대회로 소프트테니스 엘리트 선수 양성회 순창군의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순창군에서 12년 연속 개최되는 효지종목으로 대회 때마다 대규모 선수단이 방문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실제로, 대회 참가를 위해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선수단 1,300명이 순창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숙박업소

는 이미 만실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점쳐지고 있다.

화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 경기 종목은 연령별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단체전과 개인 복식의 승자를 가리고, 개인 단식은 초등부를 제외한 4개 부문으로 나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대회기간 동안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대회장인 공설운동장 및 제일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장 정비에 나섰고, 경기장마다 의료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소프트테니스는 순창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스포츠 종목으로서 스포츠마케팅에서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순창군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스포츠산업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림 기자

정읍단풍미인컵 전국 프로볼링대회 성료

남 김수용·여 김푸른, 개인 우승... 단체 'TEAM STORM' 1위

2024년 정읍단풍미인컵 프로볼링대회가 정읍 더원볼링장에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정읍의 문화·관광자원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볼링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프로볼링협회와 정읍시볼링협회가 함께 개최했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프로볼링 선수 376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

을 마음껏 겨뤘다.

대회는 남녀 각각 개인전·단체전 형식으로 조를 나눠 운영됐다. 대회의 모든 경기가 프로볼링협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볼링 마니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승리를 위한 열띤 경쟁 끝에 남자 개인전에서는 김수용 프로, 여자 개인전에서는 김푸른 프로가 우승의 영예



를 안았고, 남·여 단체전에서는 모두 TEAM STORM이 우승을 차지해 팀의 명예를 드높였다.

대회의 파이널 결승 경기는 27일 오후 7시 30분에 MBC Sports+ 채널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태권도원 시설 합동 안전점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대표 이사 사필환)는 해빙기를 맞아 태권도원 시설 전반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태권도원 부지(2,314천㎡)에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등 전 부문에 대한 세부 실태 점검을 했다.

특히 현장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직무대행 동참 하에 종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